

코오롱, 땀 흡수하는 섬유로 인기!

「흡한속건」 제품 출시 잇따라 ... 주5일 근무와 레저붐으로 매출증가

본격적인 레저시즌을 맞아 주요 화학섬유기업들이 땀을 흡수하고 신속하게 건조시킨다는 “흡한속건” 제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오롱을 비롯해 효성, 휴비스 등 주요 화학섬유 생산기업들은 최근 흡한속건 기능을 갖춘 Polyester 섬유 수요가 점차 늘어나자 차별화된 제품을 내놓고 시장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흡한속건 Polyester 섬유는 면보다 땀 흡수력과 건조성이 뛰어나 착용감이 좋고 세탁도 쉬워 스포츠 의류나 여성 속옷 등 차세대 건강 기능성 섬유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코오롱은 흡한속건 섬유 <쿨론>을 개발해 소비자를 상대로 한 제품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쿨론>은 원사 제조 단계부터 인체 접촉에 따른 발열과 발한 과정을 고려해 발산한 땀을 신속히 배출시키는 기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코오롱은 현재 <쿨론>을 월 100톤 가량 생산하고 있으며 <쿨론> 상품화를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회사 기술연구소에서 기술을 지원하고 상호 교류를 통해 상품 경쟁력도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항균, 자외선(UV) 차단, 전자파 차단 등 부가기능을 강화해 쾌적함을 주는 특수소재 시장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1999년 국내 최초로 <에어로쿨> 브랜드를 개발한 효성은 2500톤 가량을 생산해 흡한속건 제품 분야에서 약 2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효성은 2003년 대규모 설비증설을 통해 생산능력을 5000톤 규모로 크게 늘리고 해외시장 공략을 위한 현지마케팅도 강화할 계획이다.

<에어로쿨>은 땀 흡수력과 건조성이 일반 Polyester에 비해 2배, 천연섬유나 면보다 30% 이상 뛰어나며, 특히 곰팡이나 악취 발생 가능성이 낮고 수축률도 낮아 세탁 등 관리가 쉽다.

휴비스도 흡한속건 브랜드 <쿨에버>를 내놓고 스포츠 레저와 캐주얼 의류 시장을 공략하고 나섰다. <쿨에버>는 수분조절 기능 및 통기성 테스트 결과, 다른 원사에 비해 빠른 건조 속도를 보였으며 피부에서 불쾌한 수분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쾌적한 상태를 만들어준다.

흡한속건사는 주5일 근무제와 레저붐 등으로 최근 수요가 크게 늘고 있으며 더욱이 봄·여름용 소재는 물론 가을·겨울용 소재로도 활용할 수 있어 앞으로 유망 사업품목으로 꼽히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04/17>